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과 정책과제 채택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y and Agenda Adoption Trends of University Library in Korea

이 재 원 (Jae-Won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 대학도서관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 |
| 2.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였고, 2014에 수립한 계획은 대학연구력경쟁을 위한 사서역할 제고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다. 2019년 진흥종합계획은 대학연구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대학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플랫폼(인력, 물리적 공간, 자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present rational policy direction of future university libraries through the policy process related to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change of policy tasks adop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2009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at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plan in 2014 was developed with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enhance the role of librarians for competition in university research capabilities. The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for 2019 was aimed at strengthening the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in upgrading their research support. Through the research on the policy of the university library by the governmen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future university library in Korea was presented, and the plan was to provide an institutionalized platform (labor, physical space, resources, etc.) for the university library to maximize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the university.

키워드: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정책, 도서관 정책, 정책과제, 정책과제 채택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Library Policy, Library Policy, Agenda, Agenda Adoption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jw2@snu.ac.kr / ISNI 0000 0004 7397 966X)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83-99,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08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구조는 도서관 업무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법을 정책 수단으로 하여 총괄한다. 도서관법 제12조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사무를 보좌할 기획단을 문화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관련 정책을 문화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모 기관이 학교와 대학으로 되어 있어 문화부에서 관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대학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의 시작은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한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인 2008년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이 수립되었다. 이 정책은 후속 정책으로 이어져 2014년에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이 시행 중이던 2015년 9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법제8조에 의거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

획(’16~’18)」으로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대학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2년)은 기존의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을 집행하였고, 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한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6~’18)」을 집행한 것이다.

이후 2019년 1월에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 종합계획(’19~’23)」을 확정·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가 수립한 대학도서관 관련 정책 중 2008년에 수립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에서부터 2019년에 수립한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까지 연속성을 갖는 3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이 정책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하였고 정부의 각종 문서와 보고서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통해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수립한 대학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 정책의 비전과 추진 목표, 정책과제 등을 알아보고 또 정책 집행 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수립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과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4~'18)」, 그리고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에서 채택한 정책 과제와 그 변화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3 선행연구

곽동철(2006a)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경영의 활성화 및 지식 강국화를 위해 제반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곽동철(2006b)은 대학의 경영난과 구조개혁에 따른 대학도서관 경영의 변화 추이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제환(2012)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외형과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향후 대학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이용재(2017)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비교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루브릭 평가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은 당면 과제와 개별 업무 위주로 작성되는 경향이 짙고 사명과 비전의 제시가 미흡한 반면,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은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틀에서 목적과 목표 및 세부업무를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사명과 비전의 천명, 사서 중심의 태스크포스 결성, 사명과 비전과 세부 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기초적인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례연구,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의 비교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학도서관 정책은 정부가 정책과제

를 제시하기 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목표와 세부추진과제를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추어 수립·집행하고 있다. 미국뉴미디어컨소시움(NMC)은 매년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의 미래에 관한 호라이즌 보고서(Horizon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학술 및 연구도서관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어떤 트렌드와 기술이 이 변화를 이끌어갈까?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NMC Horizon Report' 시리즈는 혁신적인 사례와 기술이 향후 5년간 학술 및 연구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6개의 핵심 트렌드, 6개의 중요한 도전, 6개의 중요한 기술발전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학습, 창의적 탐구, 연구 및 정보관리 측면에서 도서관의 전략 및 운영,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서, 도서관 직원, 도서관 경영진, 정책 입안자 및 기술자를 위한 참고사항과 향후 기술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ALA 산하 미국 대학·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ACRL)의 연구 및 심사위원회(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는 2년에 한 번씩 대학에서 도서관 직무와 관련된 Top 트렌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CRL의 보고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현재의 기술 및 교육환경의 트렌드 변화로 도서관의 환경이 빠른 추세로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고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가장 최신판인 ACRL Top trends 2018 판은 도서

관의 마켓포스(market force), 기술, 정치적 환경 등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7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7개의 주요 주제로는 출판사와 벤더의 환경, 가짜 뉴스와 정보 활용능력, 도서관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접근법, 교과서의 경제성 및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학습 분석, 데이터 수집 및 윤리적 문제, 연구 데이터 수집,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과학, 장서개발 및 관리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지원·육성 방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3개의 대학도서관 현황 보고서가 의회에서 발표됨으로써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982년 발표된 Vandevoorde의 대학도서관 현황 보고서는 대학도서관의 열악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988년에 발표된 Miquel의 보고서는 대학도서관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다개년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Miquel은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학 및 국가차원의 연구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강도 높은 지원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예산, 장서 확충, 시설, 인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다년간에 걸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종합하는 1999년 발간된 Lachenaud의 보고서는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육성책이 계속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

스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10년을 주기로 평가와 장기 계획이 추진·실행되고 있다(김선에 2008).

2.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

2.1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1.1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

정부는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02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종합계획」에서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추진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1.2 정책 추진목표 및 정책과제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 대학도서관의 비전을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화'로 제시하였고, 추진목표를 '대학의 부속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전환', '열람실 기능 중심에서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개별화된 시설에서 「유기적인 연계된 체제로의 전환」, '대학의 내부 시설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

의 「공공기반시설」로 육성'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과제에 있어서도 ① 대학도서관의 기능 확대, ③ 도서관 간 연계체제 구축, ④ 산학협력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⑤ 조직·인력, 행·재정 지원 강화 등 모두 기존의 기능을 강화 또는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② 교육·학술연구 정보·자료 확충에서 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예산지원이나 로드맵이 없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인적자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장황하게 진단하고는 있으나 정책 로드맵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책의 주요 수단인 예산이나 추진일정이 없는 정책은 그저 허구일 뿐이다. 특히,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후속 정책이 입안되지 않고 단발의 일회성 정책으로 마무리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으로 인하여 대학도서관이 '부속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바뀐 것은 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① '대학도서관의 기능 확대' 추진과제에서 5가지의 추진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과제를 집행할 어떠한 수단(제도, 예산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기에는 미흡하다.

② '교육·학술연구정보·자료 확충' 추진과제는 예산의 지원 없이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지원 없이 정책과제로 채택한 것은 대학도서관 현장의 상실감만 키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대학 자율화'라는 대학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서 이러한 정책

〈표 1〉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추진과제	내용
① 대학도서관의 기능 확대	학술정보관리기관으로 육성
	학술·연구지원 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지원센터로 육성
	대학도서관의 학내 위상 강화
② 교육·학술연구 정보·자료 확충	기본 장서 및 자료 확충
	대학별 특성화 도서관 설치
	정부지원 연구보고서 비치
	해외 학술 Core Web DB 제공 확대
	해외 학술지 확충
③ 도서관 간 연계체제 구축	해외 학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체계 구축
	해외 학술정보 협력망 확대
	국내 협력망 범위 확대
	대학도서관 간 학위논문 공유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및 분담수서 활성화
④ 산학 협력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국내 학술정보 유통기관의 역할 분담 체제 확립
	산학협력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대학도서관의 산·학·연 협력지원 강화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지역정보네트워크 활성화
⑤ 조직·인력, 행·재정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에 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추진
	사서직원 인사관리의 적정화, 전문성 강화
	대학도서관 평가제 도입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능 강화
	KERIS 대학도서관 지원기능 강화

과제의 제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도서관 간 연계체제 구축’ 과제와 ④ ‘산학협력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과제는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추진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기관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성격이어야 함에도 추진주체가 불명확해 보인다.

⑤ ‘조직·인력, 행·재정지원 강화’ 과제에서 제시하는 ‘사서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성, 전문성 강화’ 과제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

2.2.1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

2008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의거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을 수립하였다. 정책수단의 하나인 법(도서관법)의 강력한 힘(5년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

게 되었다.

교육부는 「발전종합계획 '09~'13」을 수립하면서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식정보 축적량이 미국의 1/17, 일본의 1/7, 독일의 1/4 수준이며 콘텐츠의 부족은 이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 후순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간·대학간의 지식정보의 격차로 인하여 교육·연구 환경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대학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서의 능력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대학도서관을 지원할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고, 열악한 학술정보 인프라가 대학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제환(2012)은 “2008년에 작성된 「발전계획」의 내용이 대부분 2002년에 작성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준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책의 의미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도서관 관련 정책은 내용의 변화보다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2002년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에서 로드맵 없이 선언적으로 제시했던 정책을 2008년 「발전계획」에 다시 로드맵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주무부처가 ‘교육기본시설’인 대학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중·단기 실천계획을 작성했다는 것과 세부과제의 추진일정과 재정투자계

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2.2.2 정책 추진목표 및 정책과제

「발전종합계획 '09~'13」에서 대학도서관의 비전을 ‘도서관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하고 추진목표를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대학도서관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발전종합계획 '09~'13」에서 주요 추진목표를 ① 교육·연구·학술정보의 통합 서비스 제공, ② 학술정보 유통구조 개선, ③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 등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를 대학도서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학술정보의 생산·보존·유통과정을 관리하여 공동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술진흥법을 개정하고 대학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중요한 수단인 법제화를 하고자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종합계획 ('09~'13)」의 가장 큰 성과는 ‘세부과제의 추진일정과 재정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재정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록 대학도서관 진흥법이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나 학술진흥법이 개정되어 학술진흥법에 대학도서관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학술정보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 정책과제

분야	추진과제	내용
학술정보 자원 확충	① 해외 학술DB 국가라이선스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선스 확대
		해외학술DB 공동구매 강화
	② 대학 학술정보 지원센터 구축	대학 학술정보지원센터 구축
		CTL, 통합서비스, 이러닝 지원센터
		학술정보기관으로 리모델링
	③ 지역사회 연계체제 강화	학술정보자원의 산·학·연 연계 학교·공공·대학 협력체제 구축
학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및 공동 활용	①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체제 구축 및 활성화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체제 구축
		민간 구축 학술DB 국가 자산화
	②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학술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상호대차 시스템 디지털화
	③ 학술정보의 국제적 공동 활용	RISS International 보급 확대
		해외학술정보 접근성 확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① 대학도서관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	정보기술, 외국어 역량 강화
		학술연구 전문가 교육과정
		주제전문사서 양성 유도
	② 해외 선진사례 도입 및 활성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적교류 프로그램 운영
	③ 업무 영역별 지식공유 활성화	온라인 커뮤니티 개발·운영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보급
법·제도· 인프라 구축	① 대학도서관 관련 법 제·개정	관련 법 제·개정
		대학도서관 평가 제도화
	②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지원팀 구성
		학술정보 전문관리기관 지정

2.3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

2.3.1 직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의 수립은 도서관법 제12조의 법적인 정책 수단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이 「발전 종합계획('14~'18)」은 이전 정책의 후속 정책으로 연속성을 갖는 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인 정책 수단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또 다른 수단인 예산을 수반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전 「발전 종합계획('09~'13)」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서, 자료구입비 등 양적인 성장은 하였

으나 주요 지표의 성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대학라이선스 해외학술 DB를 14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여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1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고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dCollection)과 디지털 전자배송시스템(dCUBE)을 구축·보급하였다. 사서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22개 과정을 개설하여 660여 명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정책의 한계로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여전히 질적인 성장이 저조하고,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약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

방적 정책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이 불발되어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제환(2012)은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지위를 단순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도서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학도서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대학 내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KERIS를 통하여 해외학술DB의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KERIS 주

관 하에 외국학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자료구입비의 절감과 자료의 공동활용을 동시에 성취하는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평가하였다.

2.3.2 정책 추진목표 및 정책과제

『발전 종합계획(‘14~’18)』에서 대학도서관의 비전을 ‘(대학도서관 혁신지원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창의 인재 육성 및 대학경쟁력 제고’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목표를 ‘교육·연구지

〈표 3〉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 정책과제

분야	추진과제	내용
1.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	① 교수·학습 지원기능의 강화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모델 확산 학습 및 연구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② 대학 내 지식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학술정보지원센터(CTL 이터닝센터) 구축 기관 리포지토리 활성화
	③ 사서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2. 대학·연구자 간 지식정보 격차 완화	① 해외 학술DB 대학라이선스 확대	대학라이선스 확대 전자자료 컨소시엄 운영방안 개선
	② 대학도서관학술정보자원의 확충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확대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 연계방안 마련
	③ 외국학술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센터 국가출연금 규모 확대 지원센터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3. 학술정보 유통 및 공동활용 체제 강화	①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 제도 개선	상호대차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학술정보서비스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학술자원 관리 및 공유시스템 기능 고도화 학술정보의 국제적 공동활용 확대
	② 대학도서관 공동 보존서고 설립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③ 지역사회 연계체제 강화	학술정보자원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 대학도서관 인프라 개방 확대
4. 법·제도적 기반 구축	① 대학도서관 관련 법등 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대학내 자체규정 개정 검토
	② 대학도서관 정책지원체제 강화	관련 단체와의 공조체제 강화 교육부 도서관 전담인력 확충 대학도서관 정책연구 활성화
	③ 대학도서관 평가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개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원, 인문학 진흥 기반을 위한 대학도서관 역할 강화',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한 학술정보 개방 및 공개', 「지속적인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과제에 있어서도 ①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 ② 대학·연구자 간 지식정보 격차 완화, ③ 학술정보 유통 및 공동 활용체제 강화, ④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채택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환경이 한 번의 정책으로 해소될 수 없고, 루틴한 업무성격으로 여전히 이전 정책과 추진과제가 대등소이 함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 과제(『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 또한 후속 정책에서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2.4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6~'18)

대학도서관 진흥법이 제정(2015. 3. 27. 법률 제13222호)되고 시행(2015. 9. 28) 됨에 따라 교육부는 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6~'18)」을 수립하게 된다. 물론 도서관법에 의하여 「발전 종합계획('14~'18)」을 수립하였으나 대학도서관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소관의 대학도서관법 진흥법에 의하여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6~'18)」을 수립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2차례에 걸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이 드디어 정책 추진의 결실을 맺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진흥종합계획('16~'18)」은 기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 온 「발전 종합계획('14~'18)」의

남은 정책일정('16~'18)에 대하여 대체적 성격으로 차용된 정책이기에 본 연구에는 배제하기로 한다.

2.5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

2.5.1 직전 정책의 성과

「진흥종합계획('19~'23)」의 중요한 의미는 이전 「발전 종합계획('16~'18)」의 후속 정책으로 대학도서관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1차 종합계획에서 밝힌 정책과제 ⑩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개정」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는 것은 그간의 대학도서관 정책의 추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 개정을 통하여 수정·보완할 부분도 많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정책으로 추진할 문제이다.

⑫ 「대학도서관 평가」 과제에 있어서도 평가의 장·단점은 있겠으나 1차 종합계획에서 시범평가가 이루어진 점은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차 종합계획 시행 과정에서는 평가의 인센티브 부여 등 평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이 보완되어 본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정단)에서 도서관법 제12조 ②항 4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평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대학도서관의 주무부서인 교

육부가 반대해 온 경과를 볼 때 대학도서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정리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도서관의 모 기관은 대학이고 대학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정책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2.5.2 정책 추진목표 및 정책과제

교육부(2019)는 1차 종합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다면 제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열람실’ 이미지를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 학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습·연구윤리 교육’ 등 대학도서관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연구윤리 업무가 대학도서관 정책에 포함된 것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7658)에 따른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 현장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업무가 연구처와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편의대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 직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은 〈교육부-대학정책실〉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다. 직제 제11조 ③항 39호에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업무’와 42호에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 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업

〈표 4〉 『진흥종합계획(‘19~’23)』 정책과제

분야	추진과제	내용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①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 강화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확대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서비스 확충
	② 창의적·협력적 학습 환경 구축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창의 및 협업공간으로의 다양화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교육 확대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③ 해외 학술자료 구독 및 공동활용 확대	해외 학술자료 접근제고를 위한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해외 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무료공개 학술자원(OA)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유형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대학 연구자의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연구성과 수집, 연구성과 분석 활용
	④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지원
	⑤ 대학의 연구 윤리 확립 지원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확대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⑥ 대학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대학도서관 자문위원회, 대학도서관진흥연구소, 대학평가지표 개선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⑦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확산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무'를 분장하고 있다. 대학정책실장은 직제 ③항 3호의 '대학도서관 업무'와 42호의 '연구윤리 업무'를 학술진흥과 업무로 분장하고 있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 교육R&D 업무와 예산을 총괄하는 학술진흥과에서 대학도서관 업무와 연구윤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 제시하는 핵심 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강의 연계자료 바로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로 국내 연구자가 인용한 자료 중 국가 지원 해외학술 자료의 비율을 13.4%에서 30%로 늘린

다.', '대학의 연구성과 플랫폼을 보급하여 연구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민간-학계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도서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한다.' 등 4가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3. 대학도서관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

〈표 5〉와 같이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는 「발전 종합계획('09~'13)」과 「발전 종합계획('14~'18)」, 그리고 「진흥종합계획('19~'23)」 등 3개의 정책에서 채택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5〉 정책과제 별 변화 추이

발전 종합계획('09~'13)	발전종합계획('14~'18)	진흥종합계획('19~'23)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선스 확대	교수·학습 및 문화 활동 지원 강화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 강화	
대학 학술정보 지원센터 구축	대학 내 지식정보 자원의 통합관리	창의적·협력적 학습 환경 구축	
지역사회 연계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인력 전문성 강화	해외학술자료 구독 및 공동 활용 확대	확대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체제 구축	해외전자정보 지원 확대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신규 확대
통합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 자원의 확충	연구윤리 확립 지원	신규
학술정보의 국제적 공동 활용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성화		
사서직원의 역량 강화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 선진 사례 도입	학술자료의 공동 수집 및 보존		
업무 영역별 지식 공유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대학도서관 관련 법 제·개정	대학도서관 관련 법 적용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확산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정책지원 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평가 및 특성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은 도서관법에 의하여 수립한 정책으로서 '법'이라는 정책수단에 대한 기대가 있어 이전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이라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수립한 정책은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며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기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종합계획('09~'13)』의 특징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SOC 성격의 추진과제는 대학도서관 현장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기반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 현장에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학술정보의 유통구조 개선에 정책과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 자율화'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대학도서관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①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선스 확대' 과제는 이러한 예산 환경을 고려하여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로 해외학술 DB를 구독하여 대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학술정보자원의 확충이 무제한적일 수 없다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학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및 공동 활용' 과제이다. 이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서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가 확대되었고 학술정보 디지털유통체제(dCollection)와 디지털 전자배송서비스(dCUBE) 구축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일 것이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가 대학도서관을 지원할 근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모 기관인 대학은 '대학 자율화'가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정책 기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상반된 모순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규제적 성격인 '대학도서관 관련 법 제·개정'이라는 정책과제를 통하여 이러한 모순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화' 기조 속에서 대학도서관을 진흥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술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대학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은 앞서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정책의 연속성을 갖는다는 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전 정책인 『종합계획('09~'13)』에서 채택하였던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이 무산되자 다시 후속 정책의 과제로 채택한 것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대학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평가' 과제를 채택하여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도서관 평가는 "대학도서관 현장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 활용방안이 없는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현장의 반응과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많은 대학도서관들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공동 보존서고 설립' 과제가 채택되어 대학도서관 현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정책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학 자율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방법으로 '대학평가, 재정

지원사업 연계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채택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끌었으나 실행방안은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9~'23)』은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시대적·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책과제에 많이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도서관의 공간을 창의적 학습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로 정의하고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창의 및 협업공간으로의 다양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저널 구독료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픈 액세스(OA)에 대한 정책과제를 채택한 것도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과제는 대학도서관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정책과제의 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실학회(와셋: WASET, 오믹스: OMICS 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연구 윤리 확립 지원'이라는 과제를 채택한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한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확산' 과제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9~'23)』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의 직무분석에 따른 업무의 재설계 내지는 협업이 필

요하다. 전자저널 구독 문제가 대학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연구지원 문제로 보아야 하고 오픈 액세스(OA) 정책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성과분석이나 부실학회 문제 등도 대학 본부와 긴밀하게 협업이 되어야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연구재단이나 대학의 연구처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연구결과물 관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구결과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였고, 2014에 수립한 계획은 대학연구력경쟁을 위한 사서역할 제고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다. 2019년 진흥종합계획은 대학연구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대학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플랫폼(인력, 물리적 공간, 재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모형을 정책의 기반 조성고 정착, 확대라는 관점에서 차기 계획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집행 중인 정책이 최근(2019년)에 수립되었고 대학도서관 정책은 시대적·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향후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2002년에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회성의 정책에 그치고 후속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책의 강력한 수단인 도서관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는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08년에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을 수립하였고, 이후 후속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을 수립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 정책이 일회성의 정책이 아닌 연속성을 갖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정책에서는 정책의 로드맵으로 추진 일정과 예산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어 더 의미가 있다. 이 정책의 시행 기간이었던 2015년에 정책과제의 하나인 ‘대학도서관 진흥법’ 과제가 실현되어 대학 진흥법을 제정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어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정책이 정책의 강력한 수단인 법제화(학술진흥법 개정,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를 이뤘고 부족하나마 지속적인 예산도 확보하게 되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선스 확대’와 같은 수요자의 요구(Needs)가 많은 과제는 지속해서 승계되고,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체제 구축’과 ‘통합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과제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학술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dCollection)’과 ‘디지털 전자배송시스템(dCUBE)’을 구축하여 보급하였기에 정책의 성과를 다하고 소멸하기도 하였다.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 과제도 마찬가지로 법제정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다하였다.

‘학술정보의 국제적 공동 활용’과 ‘해외 선진 사례 도입’과 같이 지엽적으로 추진은 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멸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등 창의적 공간 창출을 위한 ‘창의적·협력적 학습 환경 구축’ 과제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정책의 과제는 그 내용에 따라 지속하기도 하고, 정책의 성과로 소멸하기도 하며, 다른 정책과 재편되기도 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새롭게 채택되기도 한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하여야 하고 시대적 흐름인 트렌드도 고려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Needs)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정책은 변화의 과정이 더디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 도서관 정책 또한 혁신적이기보다는 보수성이 강한 정책이기에 정책과제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정책의 의미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중요하며 특히 도서관 관련 정책은 내용의 변화보다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본문에서 제언하고 싶은 내용은 대학교

서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인 과정과 더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적인 면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정책연구를 통하여 최신의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공청회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절차적인 민주성도 중요하겠으나 내용적인 면에 더 치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을 모 기관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의 정책

을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 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하여 반드시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대학도서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처, 시설국, 사무처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연구지원·공간·예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곽동철. 2006a.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25-246
- [2] 곽동철. 2006b.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 및 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41-164.
- [3] 교육과학기술부. 2008.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4] 교육부. 2014. 『창의인재 육성 및 국가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14~2018)』. 서울: 교육부.
- [5] 교육부. 2016. 『제1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2016~2018)』. 서울: 교육부.
- [6] 교육부. 2019.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2019~2023)』. 서울: 교육부.
- [7] 교육인적자원부. 2003.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8] 김선애. 2008.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운영 사례: 프랑스』.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online] [cited 2019. 4. 15.] <<http://www.clip.go.kr/>>
- [10] 이용재. 2017.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 비교연구.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5(11): 61-66.
- [11] 이제환. 2012.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17-346.
- [12]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online] [cited 2019. 4. 18.] <<https://crln.acrl.org/index.php/crlnews/article/view/17001/18750/>>

- [13] NMC Horizon Report: 2017 Library Edition. [online] [cited 2019. 4. 18.]
〈<https://www.nmc.org/publication/nmc-horizon-report-2017-library-editio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k, Dong-Chul. 2006a.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rategic Development & the Changes in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25-246
- [2] Kwak, Dong-Chul. 2006b.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 Road Map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141-164.
- [3]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8.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Library for the Strengthening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4] Ministry of Education. 2014.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Library for the Promotion of Creative Talents and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Research Competitiveness(2014~201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5] Ministry of Education. 2016. *The 1st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Comprehensive Plan(2016~201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6] Ministry of Education. 2019. *The 2nd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Comprehensive Plan(2019~2023)*.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3.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y Librar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8] Kim, Sun-Ae. 2008. *A Case Study on the Sharing System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Academic Libraries in France*. Seoul: KERIS.
- [10] Lee, yong-Jae. 2017.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c Plans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nd Oversea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61-66.
- [11] Lee, Jae-Whoan. 2012.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Academic Library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17-346.